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극지환경실용화센터와 종자·식물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지속가능한 식물자원 보전을 위해 극지연구소와 손을 맞잡았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5월 2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극지연구소 극지환경실용화센터가 종자·식물 분야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종자·식물 분야 기후변화 및 극지환경 적응 연구 협력 ▲종자·식물 보전을 위한 교육 협력 ▲극지환경 유전자원(종자·식물)의 공동 수집 및 중복 보전 ▲학술지, 도서 출판 등 공동 발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내외 산림생물자원의 보전업무와 극지환경실용화센터는 전기·전자, 기계·화학, 바이오산업의 실용화·산업화 지원 등 유기적 연계를 통해 종자·식물 보전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국가 식물자원의 보전·연구 활성화가 이뤄지고, 더 나아가 극지환경 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책임자	실 장	나채선 (054-679-2768)
	산림생물자원본부 야생식물종자실	담당자	팀 장	김도현 (054-679-2731)

